

## ■ 주요 뉴스: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, 인플레이 지속 둔화 시 금리인하 가능

- 신흥국 통화지수, 연중 최대 주간 상승폭 기록
- 중국 규제당국, 국영은행에 장기국채 매입자의 세부사항을 기록하도록 지시
- 독일 기업 파산 건수, 2017년 이후 최대로 증가할 가능성

## 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완화에 따른 반등세 지속

주가 상승[+0.5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하락[-5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전일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이틀 연속 반등  
유로 Stoxx600지수는 글로벌 증시 반등 속 헬스케어주 강세 등으로 0.6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 4거래일 만에 하락  
유로화 가치는 약보합, 엔화 가치는 0.4% 상승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른 저가매수세 등으로 하락  
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362.8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65.4원, 0.08% 상승). 한국 CDS 약보합

|    |      | 8/9일    | 8/8일    | 전일대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8/9일    | 8/8일    | 전일대비    |
|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주가 | 미국   | 5,344.2 | 5,319.3 | +0.47% | 국채<br>금리<br>10y | 미국    | 3.94%   | 3.99%   | -5bp    |
|    | 유럽   | 499.19  | 496.37  | +0.57% |                 | 독일    | 2.23%   | 2.27%   | -4bp    |
|    | 중국   | 2,862.2 | 2,869.9 | -0.27% |                 | 영국    | 3.95%   | 3.98%   | -3bp    |
|    | 일본   | 35,025  | 34,831  | +0.56% | CDS<br>5y       | 한국    | 38bp    | 38bp    | -0bp    |
|    | 한국   | 2,588.4 | 2,556.7 | +1.24%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 | 66bp    | 65bp    | +1bp    |
| 환율 | 달러지수 | 103.15  | 103.21  | -0.05% | 위험<br>지표        | EMBI+ | 422     | 425     | -3bp    |
|    | 유로화  | 1.0917  | 1.0919  | -0.02% |                 | VIX   | 20.37   | 23.79   | -14.38% |
|    | 엔화   | 146.61  | 147.23  | +0.42% |                 | WTI유  | 76.84   | 76.19   | +0.85%  |
|    | 위안화  | 7.1683  | 7.1763  | +0.11% | 원자재             | 구리    | 399.3   | 395.9   | +0.86%  |
|    | 원화   | 1,364.4 | 1,377.2 | +0.93% |                 | 금     | 2,431.3 | 2,427.5 | +0.16% 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, 인플레이 지속 둔화 시 금리인하 가능

- Providence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며,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목표치인 2%로 돌아오고 있다고 평가
-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을 조정하고 정책의 제약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, 9월 FOMC 회의 전까지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완화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
- 한편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는 고무적이나 아직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. 현재 연준의 정책기조는 그렇게 긴축적이지 않으며, 물가상승이 더 둔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더 냉각되어야 한다고 발언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신흥국 통화지수, 연중 최대 주간 상승폭(+0.7%) 기록

- 이번주 대규모 캐리트레이드 청산 가운데서도 엔화 강세가 달러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신흥국 통화는 회복세. 연준 금리인하 기대와 지속적인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비한 포지션 구축으로 저금리 신흥국 통화 중심의 강세가 이어질 전망(Bloomberg)

### ■ 중국 규제당국, 국영은행에 장기국채 매입자의 세부사항을 기록하도록 지시

- 중국 정부는 국채금리 하락이 갑자기 반전될 경우 경제 전반에 충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으며, 동 지시는 최근 펀드 하우스에서 지방 은행에 이르기까지 채권 투기세력과 전쟁의 일환(Bloomberg)

### ■ 독일 기업 파산 건수, 2017년 이후 최대로 증가할 가능성

-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업 파산 건수는 1,934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0.9% 증가. 금년 들어 5개월 연속 증가세. 6월과 7월 예비치는 전년동월 대비 각각 6.3%, 13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기업 파산에 대한 경고 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, '17년 이후 처음으로 총 2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. 에너지 비용 및 세금 부담 완화, 관료주의 극복, 신속한 승인 절차 등 기업환경 개선이 시급(독일 상공회의소 협회)

### ■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서베이, 9월 FOMC 50bp 인하 시각은 과도

- 과거 연준은 명확한 부정적 경제 충격이 발생한 상황에서만 긴급 금리인하 또는 25bp 이상의 인하를 단행한 만큼 가능성이 매우 낮음. 응답자의 80%는 9월 FOMC에서 25bp 인하 예상

### ■ 중국 CPI 상승률, 예상 상회

- 중국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0.5% 상승하며 예상(0.3%)을 상회. 일부 지역의 폭염과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해 식품 가격이 상승한 데 기인. 한편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0.8%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
- 식품을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전월비 둔화되는 등 아직 내수 회복은 부진한 모습(Economist Intelligence Unit)

### ■ 프랑스 2분기 실업률, 예상 외 하락

-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실업률은 7.3%로 1분기 7.5% 대비 하락하면서 예상(7.5%)을 하회.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시장 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신호이나, 최근 조기총선으로 인한 의회 분열로 미래 경제정책 결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

### ■ 캐나다 7월 고용, 예상외 2개월 연속 감소

-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고용은 예상(+22,500명)과 달리 전월비 2,800명 감소.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6.4% 기록했으며, 시간당 평균 임금은 6월 5.6%에서 7월 5.2%로 하락

### ■ 브라질 7월 CPI 상승률, 중앙은행 목표(3%) 지속 상회

- 브라질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4.5% 상승. 하방경직적인 서비스 물가, 헤알화 약세, 휘발유 가격 상승 등에 기인. 갈리폴로 브라질 중앙은행 이사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나, 시장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한 연말까지 금리동결 예상(Capital Economics)

## 주요 경제지표

### ■ 내주(8/11~8/17) 주요 경제 이벤트

- 미국 소비자물가, 소매판매 및 중국 산업생산, 소매판매, 고정자산투자 등
- 유로존, 영국, 일본 등 주요국의 2분기 GDP 예비치
- 보스틱, 굴스비, 하커 등 미국 연은 총재 발언 및 뉴질랜드 통화정책 회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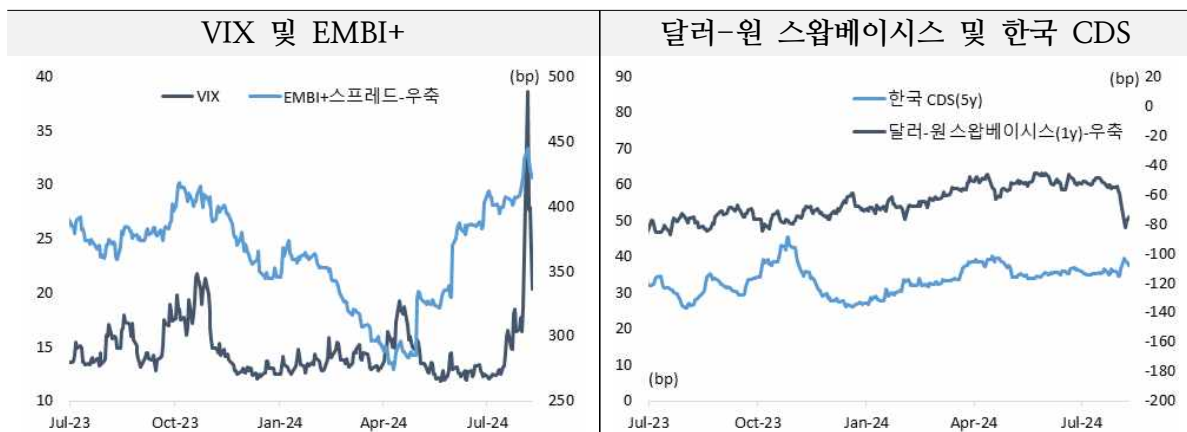
## 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4, E-mail [yshwang@kcif.or.kr](mailto:yshwang@kcif.or.kr)